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일

의정대상

이명노

광주시의원



“올해는 가능하면 결혼도 하고 싶어요.”라고 배시시 웃으며 1월에 인터뷰를 했던 젊은 의원이 10월 말 결혼을 한다.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고 올 6월 떨리는 마음으로 한 청혼을 받아줬다. 의정활동과 병행하는 결혼 준비가 쉽지는 않지만 점점 다가오는 결혼에 대한 설렘은 매일 배가 되고 있다.

예로부터 관혼상제를 인륜지대사라고 한다. 그러나 요새 그런 결혼이 점점 뜸해지고 비혼주의자가 늘어가고 있다. 인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맞이하는 큰 행복을 두고 왜 그 행복과 멀어지고 있을까. 각자 이유가 있겠지만 그제 외부 요인에 의한 결심이라면 안타까운 일이다. 혼인율이 떨어지면 출산율 또한 자연스레 떨어지기 마련이라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실제 광주의 혼인 건수는 2013년 8800건에서 2023년 4000건으로 10년 새 반토막이 넘게 떨어졌다. 그와는 다르게 최근 결혼식장 대관이 1년 걸린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익숙하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텐데 진정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려면 지자체는 그 모든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책을 설계해야 한다.

딱 1년 전쯤, 광주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 데이터를 두고 공공청사와 관광지를 결혼식장으로 개방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기성 웨딩홀이 결

혼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스텝데(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패키지)와 예식장 대관이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지워진다면 우리시는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짐을 덜어드릴 필요가 있다는 접근이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추진한, 시청 등 22개의 관광자원을 대관하는 “나만의 결혼식”이라는 사업이 선례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제안이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강기정 시장께서도 다음날 간부회의를 통해 전담 행감에서 좋은 제안이 나왔으며 우리도 준비해보자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방법은 이렇다. 공휴일과 주말 등을 활용해 무료로 시민들께 시청을 비롯한 인기 있는 관광지를 대관하고 다수의 모범 야외 웨딩업체를 선정해 각 업체가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신혼부부가 선택하여 결혼식을 치를 수 있는 사업이다. 관광자원 홍보와 활성화는 물론이고 점점 고가로 치닫고 있는 결혼식장 업계의 의도적이지 않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시민들께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이점도 있을 것이다. 과거 지역 선배들께서 1년에 300건도 넘게 치르곤 했다는 광주 시민회관 결혼식 등을 생각하면 그리 낯선 일도 아니다.

혼인을 문제가 웨딩업계의 잘못이라는 건 결코 아니다. 수요가 있으니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더 아름다운 곳에서 편하게 준비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모두가 더 호화로운 결혼식을 원하는 동안 업계는 프리미엄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고, 형성된 시장은 1인당 식대가 85000원을 호가하며 식수 보증 인원으로

250명의 식권을 선구매해야 하는 조건까지 걸고 있다. 그런 부담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주저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는 웨딩 업계에도 악영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어쨌든 그런 제안을 하고 1년이 지났지만 행정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비록 완성된 사업은 없지만 선례를 통해 사업을 만들도록 해보자는 쉽지 않은 시도를 결심했다. 마침 결혼이 청사 관리 규정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대상도 아니거나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 행사도 없는 시기라서 가능한 일이다.

광주시청 잔디광장에서 결혼을 한다. 정치인이 지닌 책임은 좋은 문화를 앞장서서 시도하고 만드는 것도 있다고 생각했다. 식사도 출장뷔페와 인근 식당을 함께 섭외해 지역 상권과 상생하고자 한다. 시의원이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다행히 현재도 우리 시민 모두가 할 수 있는 결혼식이나 누구도 하지 않았던 것뿐이다. 기성 식당에서 결혼하는 것보다 고민하고 준비할 것이 많지만 언젠가 시민들께서 편히 이용할 상상을 하면 이쯤이야 감수할 수 있다. 물론 이 유쾌한 시도를 흔쾌히 함께할 결심을 해준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한없이 감사할 따름이다.

오늘 의회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다 아름다운 우리 시청 앞 광장을 바라본다. 선선한 가을날이지만 어느 잔디밭을 가도 보이는 돛자리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 하나 없는 아까운 공간이다. 언젠가 이곳도 시민들께서 여유를 찾는 공간이 되길 희망한다. 광주시청은 시민의 것이다.

社說

‘양육부담’ 지역 분담 큰 성과로 이어지길

전남도, 지역사회 책임 등 천명

제19회 임산부의 날을 맞은 10일 김영록 전남지사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저출산 시대,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지역사회의 배려와 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자치단체의 변화가 큰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합계출산율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도시국가인 마카오와 홍콩을 제외하면 세계 최하위다. 올해 수치가 0.7명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크다.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의 위기다. 전남 또한 지난 2022년 합계출산율이 0.96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지만, 같은 해 출생아 수가 7888명으로 2018년 이래 7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곡성의 경우 인구 1000명 당 출산율은 0.53명에 불과하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의 고

령화다. 최근 통계청은 48년 뒤인 2072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7.7%로 전체의 5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놴다.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도 중요한 요인이다. 전남도가 발표한 2023년 사회지표 연구에서도 영·유아를 위한 보육환경 개선과 고령 산모를 위한 보건시설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취업이 힘들고,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청년층이 늘어나는 것도 신자유주의에 매몰된 우리 사회의 민낯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지역의 필요에 맞춰 추진하는 것은 지역 맞춤형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도는 복잡한 정치적 셈 법에서 벗어나 일관된 의지를 갖고 전남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중앙 정부의 정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광주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와의 공동 노력도 필요하다. 저출산과 인구 문제 대처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공유와 공감 필요한 옥매광산 강제동원

희생과 저항의 역사 기억해야

일제시대 제주도로 강제동원된 해남 옥매광산 노동자들에 대한 추모·기억을 위한 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려 눈길을 끈다. 해남군 황산면 주민자치회와 농농길 청년마을이 ‘옥매광산 : 별들을 생각하는 밤’을 오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광주시 충장로 인성빌딩 1층에서 개최한다.

‘옥매광산 : 별들을 생각하는 밤’은 별이 된 118인의 영혼을 기억하며,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한 예술적 오마주다. 전시에서는 사운드 및 영상 작품 4점, 설치조각 2점, 주민참여 작품 300여 점, 과거의 기록과 기억을 담은 아카이브 50여 점이 소개될 예정이다. 부대행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40분 광주극장에서 ‘옥매광산 : 별들을 생각하는 밤’ 상영회가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지역주민들과 청년 예술인들이 협업해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국내 강제징용의 아픈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뜻 깊은 행사다.

옥매광산 광부수몰사건은 해방 직

후인 1945년 8월 20일 새벽 완도 청산도 앞 해상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선박이 침몰해 118명이 숨진 사건이다. 황산면과 문내면 등의 출신으로 옥매광산 광부들이 이들은 1945년 3월 하순께 일본 경찰과 헌병에 의해 강제로 배에 태워져 제주도로 끌려갔다. 이들은 제주도 서귀포 등지에서 군사시설인 굴을 파거나 진지작업 등에 동원됐다가 8월 15일 해방이 되자 어렵게 배를 구해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변을 당했다. 해남 옥매광산 노동자들의 아픔도 전국화 되지 못했다. 역사의 현장인 옥매광산 저장창고도 현재 조선대학교의 사유지로 묶여 있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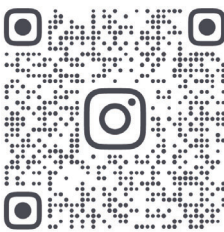
‘해남 밖’ 첫 전시인 이번 전시는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옥매광산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뜻 깊은 행사다. 첫 관외 전시가 광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는 5·18민주화운동을 이끈 시민들의 희생과 저항의 상징이다. 광주 전시를 계기로 해남 옥매광산 노동자의 아픈 역사를 광주 시민들과 공유하고 공감하는 ‘연대’가 이뤄지길 기원한다.

진일보

@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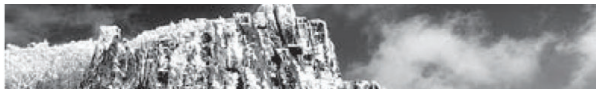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서석대

독일 남부 바이에른의 주도 뮌헨에 가면 잉글리셔 가르텐이란 공원이 있다. 10월이면 맥주 축제로 들쭉이는 테레지안 비제 광장에서 동쪽으로 걸다 보면 만나는 이곳은 길이만 36km에 이르는 거대한 정원이다. 다뉴브 강의 지류, 이자르 강이 흘러가며 조성된 면적도 400ha에 달한다. 이곳을 찾으면 푸른 숲을 배경으로 일광욕을 즐기는 시민과 각종 야생동물,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는 모습이 일상이다. 정원을 대하는 뮌헨 사람들의 생각도 특별하다. 도심 한 편, 거대한 금싸라기 땅을 뮌헨 사람들은 자신의 정원처럼 아

영산강의 도전



운 모습도 자연이 주는 신비다.

꽃과 나무로 둘러싸인 정원은 도시민에게 평온과 휴식을 준다는 점에서 지역의 경쟁력이다. 지역 축제에 ‘정원’이 빠지지 않고, 지방자치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정원을 조성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장 지난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후 서울식물원을 비롯해 우리나라에 대규모 국립 수목원이 2곳이나 문을 열었고, 전국에 조성된 민간 정원도 100개가 넘었다. 특히 제1호 국가 정원으로 지정된 순천만과 2호 국가정원으로 등록된 울산 태화강 일원은 황무지를 정원으로 만든 벤쿠버 부차드 가든처럼 생태 복원의 상징이라는 의미가 크다.

불모지였던 나주 영산강 일대가 대규모 정원으로 탈바꿈을 시작했다. 나주시가 주최하는 축제도 9~13일 이곳에서 펼쳐진다. 영산강 정원이 추구하는 가치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의 꿈도 ‘영산강 정원을 통해 지금까지 방치됐던 영산강에 생명을 불어넣고 새로운 나주의 르네상스 시대를 개막하겠다’는 것이다. 순천만과 태화강에 이어 오는 2030년에는 국가정원 지정도 목표로 내세웠다. 2000년 역사문화 유산이 살아 숨쉬는 영산강. 시민과 함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영산강의 도전이 듬직하고 멋지다.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